

# 고창청보리밭 관광거점으로

### 사계절 찾아오는 테마 관광지로 발전 · 종합적인 검토 · 의견 수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관광지인 고창 청보리밭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농촌에 활력을 주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실과소장, 축제위원회, 제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청보리밭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광역' 중 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고창 청보리밭 일원을 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찾아오는 테마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거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광역 마무리

단계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운영체제인 (주)영소아일랜드 박한식 소장은 고창 청보리밭을 활성화하고 보다 새롭게 탈바꿈 시킬 여려 방안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

군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매년 축제 기간 동안에만 45만여명 이상 찾아와 전국적인 힐링지로 각광받고 있는 고창 청보리밭이 한발 더 나아가 계절별·테마별 아이템을 새롭게 발굴해 고창군 대표 관광지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준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봄철이면 푸른 정취를 찾아 30여만 평 광활한 고창 청보리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여름이면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과 겨울이면 설경까지 지역 대표 관광거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면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확충과 특색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주민소득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에 한우자원연구센터 들어선다

### DNA 분석실 등 최신 시설 갖춰 2018년 착공 예정

정읍에 글로벌 축산교육기관인 축산인력육성센터와 우수한 한우 자원의 연구와 육종을 담당할 한우자원연구센터가 들어선다.

이와 관련, 이남호 전북대학교총장과 김장은 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정읍시 웅동면 칠석리 일원 16만15천290㎡의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축산인력육성센터와 한우자원연구

센터는 교양생 기숙사와 시험실, 사료 연구실, DNA 분석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되며, 2018년 착공 예정이다.

김장은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교육센터에서 연간 250여명의 국내외 축산 창업 희망 교육생이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한우자원연구센터를 통해 정읍한우가 일본의 고베화우를 뛰어 넘는 세계 최고의 쇠기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특히 "운영 인력의 채용 시 정읍시 특인 우선 고용과 개발 기술의 정읍시 능가 우선 적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시설은 전북대학교 산하 교육·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축산 창업 희망자와 개발대상국의 축산 인력 양성 교육 담당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한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임실읍 성가리 일대 꿈에 본 내 고향 벽화사업 완료

### 현지도 · 성당 · 향교 등 그려

임실군이 임실읍 성가리 일대에 '꿈에 본 내 고향' 벽화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관광명소를 주목받을 전망이다.

군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돼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 이야기, 임실읍 성가리 역사'를 주제로 최근 벽화작업을 완료했다.

벽화는 지난 1964년 지정환 신부가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후 주민들과 치즈를 만든 이야기와 임실현지도, 성당, 향교 등 주요 명소를 그려냈다.

특히 벽화가 그려진 골목 끝자리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치즈공장 및 숙성실로 사용된 토굴 주변을 전사실 및 휴식공간으로 복원하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어서 벽화마을과 함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체험객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

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가리 벽화가 아름다운 골목길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자원봉사자대회 · 기념식 진행

### 김성진 외 20명 순창군수 표창 · 영상 상영 · 문화공연 등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임금순)는 15일 향토회관에서 '2016 자원봉사자대회 및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크고 작은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주고 온정을 베풀어 지역사회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념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김종섭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장 및 센터등류 자원봉사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대 성황을

이뤘다.

이날 시상식에는 순창을 김성진 외 20명이 순창군수 표창, 자연보호연맹 김용근 외 1명이 순창군회의의장 표창, 우수청소년 시상으로는 임희주 외 5명은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장, 백일홍라이온스 박경아 외 3명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장, 청소년우수봉사자시상에는 이예린 외 9명이 센터소장 표창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2016년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문화공연 등 순으로 자원봉사자대회는 막을 내렸다.

황숙주 군수는 행사에서 "이웃사랑을 품고 실천해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를 축하하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순창을 만드는 데 자원봉사자들이 변함없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자원봉사의 가치 증진 및 참여문화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기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노인 자살 예방위한 작은 음악회 열려

### 원광대학교병원서

전라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이 2014년 45.7명에서 2015년 56명(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북 전체 평균 자살사망률이 26.6명임을 감안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라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원광대병원 이상원 교수)가 음

악을 통한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노인 자살예방 합창단 지원 사업을 통해 생명 사랑을 노래로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15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을 찾아 로비 작은 음악회를 연 것이다.

코리창이 많은 입원 환우들은 물론 보호자 및 전폭 도민들을 위하

여 원광대병원 외래동 1층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자살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증진을 위한 순도장 짝기 캠페인도 함께 펼쳐졌다.

화웨이 전통 현악기의 밝고 경쾌한 음률을 선보인 전주 우쿨렐레 여성 합창단과, 바이올린&첼로(전유진, 이슬기) 듀오의 아름다운 선율과 깊은 음악이 하모니를 이룬 이날 음악회는 생명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순창에도 올해부터 눈썰매장 개장

### 내일부터 2일간 무료 시범 운영

순창에도 올해부터는 눈썰매장이 본격 개장에 주민들과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눈썰매장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임시주차장에 조성됐으며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주민들에게 무료로 시범 운영된다. 정식운영은 오는 23일 금요일부터다.

17 ~ 18일 이틀간 임시 개장하는 눈썰매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모바일순창' 앱을 설치 실행해 메뉴-순창관광-패스-관광눈썰매페스티벌로 들어가 쿠폰을 내려 받아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면 쿠폰 1장당 2명까

지 무료로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눈썰매장은 장류축제기간 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군측이 도시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절기에는 눈썰매장으로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진행된 사업이다.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2020년까지 장류축제 기간에는 기존대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해리면, 정감 있는 가로수길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 해리면이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정감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명소로 키워가고 있다.

해리면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행복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감 있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 5월 정감 있는 가로수길 추진위원회(위원장 최형진)를 구성하고 사업 구성과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만든다는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이 자발적 모금활동을 통해 7500여만원의 예산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발대식을 갖고 해리면 주요 도로구간과 마을 안길 등 면 전역에 이팝나무 3700주 등 총 4300주의 가로수를 식재했다.

식재 작업에는 해리면체육회(회장 최보선) 회원들을 주축으로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지어 화합과 발전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

추진위원장인 최형진 위원장은 "해리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주민은 물론 각 사회단체와 재외면민들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명품 가로수길을 선사할 수 있도록 면민이 합심하여 정성껏 나무를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연 해리면장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해리면 구성원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큰 일을 해냈다"면서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앞으로면민들과 함께 인정 내지는 해리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신일섭 순창경찰서장 취임식

###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일섭 순창경찰서장은 15일 오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일섭 서장은 취임사에서 '업무에 정통하고 청렴한 소제지는 매년 집중호우 시도로가 침수돼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총 4억원(시군조정교부금 3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13일 착공했다.

공감받는 순창경찰이 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추진계획을 전직원이 소감과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서장은 "순창경찰 가족이 된다고 동시에 치안책임자로서 중책을 맡게 된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재임기간동안 직원과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휘관으로써 솔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일섭 서장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청용면 소재지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 착수

임실군은 주민 안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용면 소재지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청용면 소재지는 매년 집중호우 시도로가 침수돼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총 4억원(시군조정교부금 3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13일 착공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통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은 재해 취약구간을 신속히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 문화특구

### 김제시랑장학재단 진로콘서트 개최

김제시랑장학재단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꿈키움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꿈키움 진로콘서트』는 대학진학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고3학생들이 그동안 쌓았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김제시와 함께 추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진로 강연은 박종기 마니엔리치스 대표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금융설계"라는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경제력,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진행하여 참석한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손삼국 김제시 행정지원국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같이 교과서 밖에서 마주하는 세상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와 김제시랑장학재단은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후 여가 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커피 바리스타 취미교실, 무료문화예술공연 관람, 무료단체 영화관람 등의 특별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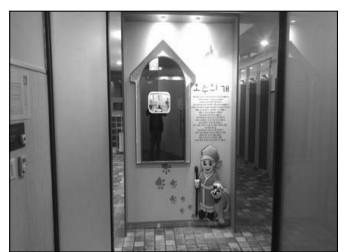
### 남원경찰 지역주민 간담회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은봉과출소(소장 유현수)는 연말연시 등 반겨리 안전을 위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대형사고 예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평온한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간 마을 단위 간담회를 실시 반겨리 안전치안 관련 여론조사, 교통사고 예방 및 강, 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차 배치를 확대하고, 여성 안심구역 및 귀갓길 등 취약개소 위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주차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 순찰활동을 통해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 대상 선도화동과 재해, 재난, 테러에 대비한 적극적 경찰활동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유 소장은 주, 야간 순찰활동을 통해 마을 단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 절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보이스 피싱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안전하고 평온지역이 되도록 전 직원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오수휴게소, 테마 화장실로 새단장

오수휴게소(소장 황기홍)가 지역의 스토리를 테마로 화장실을 새단장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스토리텔링 화장실 조성은 오수면의 자랑인 오수의견소(전주지방항오수휴게소)와 지역특산물인 임실치즈(광양방향 오수휴게소)를 테마로 지난 5일 개소했다.

키치키치 존, 스마트 미러, 재실감지시스템 등 고객편의를 위한 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전용 화장실로 개선해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의견공원과 임실치즈홍보관, 체험관을 운영하고 지역홍보와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기홍 소장은 "휴게소 홍보와 더불어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휴게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리텔링 화장실 조성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문화 혁신'과 휴게소 운영업체의 '지역과 함께하는 휴게소'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실=진종영 기자